

“정부 사업비 대폭 축소… 공사기간도 빠듯”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공사 또 유찰

올림픽플라자 2017년 9월 완공 계획 한 달 이상 지연

건설사 “타산 안 맞고 공기 짧다” 아무도 응찰 안해

당장 수의계약 비상체제 가동해도 적기 완공 불가능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의 2017년 9월 완공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개·폐회식장이 포함된 올림픽

플라자 건설공사 입찰이 두 차례나 진행됐으나 건설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관련기사 3면

2018평창동계조직위는 지난달 1일 조달청에 의뢰해 첫 번째 입찰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19일 재 입찰했으나 업체가 없어 지난 3일 최종 유찰됐다.

개·폐회식장은 올림픽 개막 4개월 전인 2017년 9월까지의 공사를 완료해야 각종 시설 공사를 비롯해 개회식 리허

설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가뜩이나 빠듯한 공기에서 24시간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이번 유찰로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지연되게 됐다. 부족한 공사비와 빠듯한 공기가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림픽플라자에는 개·폐회식장을 비롯해 메달 플라자, 성화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초 도는 총사업비로 1,897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36%를 삭감한 1,226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폐회식장에만 940억원이 소요된다. 몇몇 굴지의 건설사들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수지타산도 맞지 않고, 공기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공기가 부족하게 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치동계올림픽 이후 개·폐회식장 강릉 이전과 경비 절감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거의 1년이란 시간을 그대로 보냈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경기 필수시설인 개·폐회식장의 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석·이성현기자



사고대책본부서 회의 주재하는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중국 지안(集安)에서 버스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9명의 영정이 있는 전북 완주의 지방행정연수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고수습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일거리 없는 건설업체 고사위기

〈枯死〉

업체 4곳 중 1곳 수주금액 '0' 공공공사 줄고 외지업체 늘어

도내 건설업체 4곳 중 1곳은 올해 상반기에 단 한 건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가 고사 위기다.

5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역 종합건설업체 608개사 중 올해 1~6월 수주금액이 '0'인 업체는 전체의 23.7%인 144개사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공사물량을 중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하고 있는데 외지업체 진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공사 발주량 감소는 건설업체 경영난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수주금액은 총 5,96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76억3,000만원이 줄었으며 건설경기가 좋았던 2009년(9,041억3,000만원)의 65%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출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총 608개사로 2006년 1,071개사에서 9년 만에 절반이 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가 본격화되며 수주물량 증가를 기대했지만 대부분 대형업체 몫으로 돌아간데다 도내 업체 참여도 적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지역 건설업체는 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대형 공사 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공사 사업비가 3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시 최소 49%(147억원), 국가계약법은 30%(90억원) 이상 수주할 수 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련 전철전원설비·전력설비 공사에서 30% 지분을 확보한 토종기업인 강릉 정화통신(48억6,423만원), 영월 효성(45억7,165만원), 고성 현대아산(28억1,565만원), 강릉 백두(24억1,980만원), 춘천 조은전기(10억6,151만원) 등이 수주한 금액은 157억여원에 달한다. 하위윤기자

올림픽 개·폐회식장 공사 차질 - 1면에서 계속

당장 수의계약 추진과 함께 비상 체제를 선 가동한다고 해도 폭설 등 돌발적인 기상변수가 한 차례라도 발생하면 적기 완공은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 도 관계자는 “개회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는 마지막 행사”라면서 “개·폐회식장 완공이 지연되면 평창올림픽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레미콘 가격 협상에 중소건설사 전전긍긍

공급단가 ㎡당 2,800원 인상 발표… 중대형 건설사 ‘경쟁입찰’ 맞벌 협상 테이블서 배제된 중소건설사 공사비 인상에 수익성 악화 우려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레미콘 가격인상 가능성에 노심조사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건설업체와 레미콘사들은 지난 6월 말 1년간의 ‘레미콘 협정가격’ 협약기한이 지난 이후 재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무연탄 등 기초 자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레미콘 가격 동결이나 인하를, 레미콘사들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일부 레미콘사들이 단가를 현행 1㎡당 6만2,100원에서 6만4,9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형 건설사들도 이에 반발해 ‘레미콘 경쟁입찰’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협정가격으로 동일하게 공급

됐던 레미콘을 개별 입찰하면 상당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우려된다.

중대형 건설사는 대량으로 구매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지역 중소기업은 레미콘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도 없고 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수요가 적은 중소건설사나 레미콘 공급이 부족한 지역 업체들은 레미콘 가격 인상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철새업체 공사 독식 도 전기업계 대책 촉구

“도내업체 13%만 수주”
도와 발주기관 방문
보호대책 적용 요구

속보= 1100억원 이상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를 ‘철새 업체’가 사실상 독식(본지 7월3일자 1면)한 것과 관련, 강원도와 도내 전기공사 업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도내 전기공사 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 가운데 1183억원 규모의 전기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도내 전기업체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수주한 금액이 전체 입찰 규모의 13%인 157억 32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참여한 도내 업체는 △진부~강릉간 전력설비 공사(효성 45억7165만원·강릉) △둔내~대관령간 전철전원설비 공사(정화통신 48억6432만원·강릉) △대관령~강릉간 전철전원설비 공사(백두 24억1980만원·강릉) △둔내~진부간 전력설비 공사(현대아산 28억1565만원·고성) △원주~강릉 철도건설 지장신호설비 공사(조은전기 10억6151만원·춘천) 등이다.

반면 지난 4월 주소를 강원도 춘천으로 이전한 전기업체 3곳의 수주액은 199억6826만원에 이른다. 이는 도내 토종 전기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통해 수주한 금액 보다 42억여원 많은 수치다.

이처럼 외지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거나 ‘철새업체’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잠식으로 도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강원도와 도내 전기공사 업체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를 발주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와 도내 전기공사 업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도내업체 보호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지역의 영업활동이 소재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감점이 없고 △180~150일이면 -1점 △150~120일 -2점 △120~90일 -3점 △90~60일 -4점 △60일 이하인 업체는 -5점 등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부한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장은 “패널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상도 의마저 저버린 ‘철새 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관련 계약법상 예규라든가 명시된 사항이 없어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낙찰자 결정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kwwin@kado.net

◇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내 전기공사 낙찰 내역 (단위:원)

공사명	낙찰금액	낙찰업체/지역/금액/비율	강원 공동도급업체/금액/비율
진부~강릉간 전력설비 공사	150억	한진중공업/부산/104억/70%	효성(강릉)/45억/30%
둔내~대관령간 전철전원설비 공사	162억	삼진일렉스/서울/113억/70%	정화통신(강릉)/48억/30%
대관령~강릉간 전철전원설비 공사	80억	육일전설/충남/56억/70%	백두(강릉)24억/30%
둔내~진부간 전력설비 공사	93억	우진전기/경기/65억/70%	현대아산(고성)/28억/30%
서원주~둔내간 전력설비 공사	106억	우민전기(4월 서울서 춘천 전입)/53억/50%	
진부~강릉간 전차선로 공사	140억	일석(4월 서울서 춘천 전입)/58억/41.6%	
둔내~진부간 전차선로 공사	162억	승아전기(4월 서울서 춘천 전입)/87억/54%	
지장신호설비 이설 공사	35억	원흥전설/서울/24억/70%	조은전기/춘천/10억/30%
8건	932억	774억	157억(3사 199억 제외)

알립니다

제4회 강원고용대상



강원도민보는 강원경영자총협회,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강원지역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강원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강원고용대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회 강원고용대상에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 시상 분야 △대상(하이원리조트 사장상) 1개 업체 :상패 상금 2000만원 △우수상(강원도민일보 사장상) 1개 업체 :상패 상금 1000만원 △우수상(평창지역 부문·하이원리조트 사장상) 1개 업체 :상패 상금 1000만원 △장려상(여성·장애인 고용 부문) 1명(업체 및 개인) :상패 상금 500만원 △장려상(건설부문) 1명(업체) :상패 상금 500만원
- 제출서류·추천 기관 :본사 홈페이지(kado.net) 참조
- 접수기간 :2015년 7월 6일~7월 24일(접수마감 당일 우편접수인 유효함)
- 접수처 : (우)200-707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22 강원도민일보 편집국 경제팀 (033)260-9230-9233
- 선정 방법 :1차 서류심사(예비심사), 2차 현지실사(실태조사), 3차 본심사
- 시상 일자 :2015년 9월 3일 오후 5시
- 장소 :하이원호텔 그랜드블룸
- 주최 :강원도민일보·강원경영자총협회·하이원리조트
- 후원 :강원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여주~원주 전철사업 차질 우려

에타 결과 발표 연기
도정치권, 부처 방문
조기 추진 협의키로



‘여주~원주 전철사업’이 두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초 여주~원주 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에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으며, 결과 발표시기를 당

초 지난해 말에서 올 4월로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에타 결과 발표가 또다시 7월로 미뤄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에타 결과로 인해 발표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에타는 월곶~판교구간에서 복선전철이 추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기선(원주 갑)·이강후(원주 을)국회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들과 만남을 통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점진에 나설 예정이다.

곳-판교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B/C가 0.83으로 기준치에 크게 미달해 결과 발표도 계속 늦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타 결과 발표 연기로 5100억 여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 확보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기선(원주 갑)·이강후(원주 을)국회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들과 만남을 통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점진에 나설 예정이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2015 평화 비엔날레
PEONGCHANG BIENNALE GIAX

GIAX 페어

7.23(목) - 7.27(월) 평창 용평리조트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사)민족미술인협회 강원도지회

주최전시 열방미술
특별전시 포스트픽수리 / DMZ 발곡/ 임 있는 강림
033. 243. 0784 www.pcblen.org